

# 安東金氏大宗會報

會 會 會  
明 金 金  
金 金 金  
鳳 鳳 鳳

發行處  
서울·東大門區藏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善口座: 010983-31-0513119  
私書函: 서울 清涼郵遞局 137號

## 87年度定期總會盛了

大宗會第二〇次(一九八七年)定期總會는 지난 五月三日 上午十一時부터 서울 東大門 區忘憂洞 龍宮宮前에서, 京鄉 各地에서 三五〇余 宗親이 參 席한 가운데 盛大히 開催되었 다.

國民儀禮와, 先祖님의 英靈 에 대한 追慕默念으로 始作된, 이날 會議는 經過報告와 決算 報告, 監事報告에 이어, 宗門을 밧면, 六名의 博士와 一名의 孝 婦에게 祝賀牌와 善行牌에 아울 러 副賞을 各各 授與하였다.

다음은 會順에 따라 任員選 出로 들어갔는데, 새로 選出된 臨時議長 得榮(提學公派宗會長) 氏의 就任人事에 이어, 任員選 出 方法은 各派宗會長으로 하 여 金鎭衡委員會를 構成해서 選 出하자, 是 勳議案이 成立되어, 一 二派(三派 不參) 派宗會長이, 別室에서 眞摯한 討議 끝에 앞 으로 二年 동안 會務를 執行할 會長團과 監事를 選出하고, 理 事陣은 前例에 따라 各派의 人 員比例에 依據, 自派宗會長에게 委任하기로 하였다.

또 今年度 豫算案, 審議는 原 案대로 無修正 通過되었지만, 去年度 總會에서 留保된 定款 改正案은 時間 關係로 理事會 로 委任하자, 是 書雲觀正公派主 冕宗親의 勳議가 成立되어 滿 場 一致로 可決하였다.

出 方法은 各派宗會長으로 하 여 金鎭衡委員會를 構成해서 選 出하자, 是 勳議案이 成立되어, 一 二派(三派 不參) 派宗會長이, 別室에서 眞摯한 討議 끝에 앞 으로 二年 동안 會務를 執行할 會長團과 監事를 選出하고, 理 事陣은 前例에 따라 各派의 人 員比例에 依據, 自派宗會長에게 委任하기로 하였다.

鳳 演(按廉使公派) 平素에 崇祖理念이 透徹하고, 宗親間에 親睦과 團結心이 敦 篤하였고, 多年間 按廉使公派 會長과 己未大同譜 編纂委員會 監任顧問 및 槐山郡宗親會長等 을 歷任하는 동안 松泉書院 復 元事業을 爲始하여 忠烈公神道 碑 建立, 忠愍祠 聖域化 推進 事業 및 己未大同譜 發刊事業 大宗會館建立推進事業 等에 獻 身努力하였고, 大宗會 獎學基 金과 忠武公(諱 時敏) 語錄碑 (於 獨立紀念館) 建立基金 等에 眞摯한 熱誠을 滿場 一致로 可決되었다.

眞摯한 熱誠을 滿場 一致로 可決되었다. 또, 設壇場所는 現在 宗宅이 있는, 慶南, 山淸郡 生草面月 谷里 一三八番地 所在, 都事 公諫 彦弘 齋舍內, 弘毅齋 後 廳으로 決定하고, 現地에 居住 하는 宗派의 後孫들이 干先山 地를 買入, 整地工事を 進行하 였고, 各處 後孫들의 誠獻에 힘 입어 石物을 갖추니 所要代金 이 三百餘萬원이었다.

또 이날을 紀念하는 附隨行 事로 都德獎學會에서는 一九八 六年度에 學業成績이 優秀하며 品行이 端正한 勝會 順德 兩君 에게 賞牌와 아울러 副賞으로 金一封을 授與함으로써 盛大 한 行事를 끝마쳤다.

巨額을 寄贈하는 등 物心兩面 으로 協助한 功勞가 至大하였 음.

善行牌一名 韓 東婉(都事公派) 二〇歲에 華城郡 錦衣里 台 鋪氏에게 出嫁한 후, 食寒한 家庭에서 一二年間이나, 中風으 로 누워 呻吟하는 媳母님의 大 小便의 수발과 侍湯奉養에 精 誠을 다했으며, 雪上加霜으로 男便마저 精神疾患으로 意識의 分間이 없었지자, 보따리 行商 을 하면서 家計를 支撐해 가며, 五男妹의 시동생을 成娶시키는 한편, 四男妹의 子女들을 훌륭 하게 길러, 第12回 어버이 날 에는 京畿道 知事로부터, 孝行 賞을 받은바 있음(本報 15號 6 面參照).

祝賀牌 六名 法學博士 泰倫(密直使公派) 現 大宗會 理事인 泰倫 宗親 是 單身越南하여 一九六三年에 檀國大學校 法學科를 苦學으로 卒業, 一九八二年에는 高麗大 學校 大學院에서 法學碩士學 位取得, 이어서 필립핀산토 토 마스大學校에 留學, 一九八六年 八月에 同大學院에서 法學博士 學位를 取得한 晚學徒임, 現 江 原大學校 經營大學과, 國民大學 校 行政大學院 講師.

是 單身越南하여 一九六三年에 檀國大學校 法學科를 苦學으로 卒業, 一九八二年에는 高麗大 學校 大學院에서 法學碩士學 位取得, 이어서 필립핀산토 토 마스大學校에 留學, 一九八六年 八月에 同大學院에서 法學博士 學位를 取得한 晚學徒임, 現 江 原大學校 經營大學과, 國民大學 校 行政大學院 講師.

(非 賣 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人한 宗親께서 는 바짐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是 單身越南하여 一九六三年에 檀國大學校 法學科를 苦學으로 卒業, 一九八二年에는 高麗大 學校 大學院에서 法學碩士學 位取得, 이어서 필립핀산토 토 마스大學校에 留學, 一九八六年 八月에 同大學院에서 法學博士 學位를 取得한 晚學徒임, 現 江 原大學校 經營大學과, 國民大學 校 行政大學院 講師.

統計學博士 富 鏞(34 都事公 派) 一九七二年에 培文高校를 卒 業하고, 一九七六年에는 延世 大學校 商經大學 統計學科 卒 業, 一九八二年에 美國 버지니 아 工科大學에 留學, 一九八〇 年에 同大學院에서 碩士, 一九 八六年에는 統計學 博士學位 를 取得하여 歸國, 現在 國防科 學研究所 先任研究員으로 在職 中임.

理學博士 泰成(51 按廉使公 派) 一九五七年에 景福高校 卒業, 一九六一年에는 서울大學校 師 範大學을 卒業하고, 一九七一年 에 延世大學校 大學院에서 教 育學碩士, 一九八七年에 仁荷 大學校 大學院에서 理學博士 學位를 取得하였고, 現在 忠北 大學校 副教授로 在職中.

社會學博士 喜(32 按廉使公 派) 一九七五年에 梨花女高를 卒 業하고, 一九八〇년에는 延世 大學校 社會學科 卒業, 이어서 美國 메릴랜드 洲立大學校에 留 學하여 一九八六年十二月에 同 大學院에서 社會學博士學位를 取得하고 歸國, 現在 延世大學 校 講師로 勤務中임.

文學博士 容銀(34 提學公派) 一九七二年에 舞鶴女高 卒業, 一九七六年에는 高麗大學校 文 科大學에서 佛語佛文科를 卒業 하고, 一九七八年에 同大學院 에서 碩士學位를 取得하였으며, 一九七九年 프랑크 리용 二大 學校 文科大學, 프랑크 現代文 學比較文學部에 留學, 博士課程 을 履修하고, 一九八五年 六月 에 文學博士學位를 取得, 現在 江原大學校 教授로 在職中임.



### 司諫公設壇告由光景

山淸郡 生草面 月谷里에서는 京 否조차 알수 없는 實情에 놓여 있는 現實이며, 說使 八·一五 以前에 省墓한 宗親이 계셨지만, 長久한 동안에 學皆가 他 界하시니, 國土가 統一되고 往 來가 可能하다 하더라도, 墓域 來가 可能하다 하더라도, 墓域 의 始尋은 어려워져서, 後孫들의 遺恨은 甚히 남을 것이라고 생 각한 提學公派 宗親에서는, 思 之窮之 끝에 設壇奉祀의 案이 提起되었고, 一九八七年 二月 二十日에는 天原郡 並川面 佳 田里에서 緊急理事會를 開催,

族譜란 祖上의 血統을 体系化하고 子孫의 昭穆을 밝힘으로서 宗親 間에 親睦을 敦篤히 함에 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趣旨에 立脚해서, 우리 大宗會에서는 지난, 一九七九년에 大同譜를 發刊하였으나, 이미 十年의 歲月이 흐르는 동안에 出生, 結 婚, 死亡, 移葬, 官職의 陞進, 學位取得 等등의 變動事項이 發生하였을 뿐 아니라, 大同譜에 漏落된 派中宗親도 許多하여 『派譜刊行』의 宗 議가 大作되고 이에 따라 全体理事會에서 爛熟熟議, 다음 事項이 決 議되었음으로 이를 公告하오니 按廉使公派 宗親은 無漏呈單 하시기 仰望하나이다.

一。修單金... 冠童男女 共히 一人當 二千원  
一。連絡處... 淸原郡 梧倉面 場垈里 金在福家  
○四三二一五〇一一〇六一二  
按廉使公派大宗會會長 金在晚白

### 選出任員名單

會 長 明 會(留)  
副會長(常任) 崙 會(留)  
副會長 相 祺(留)  
副會長 泰 亨(新)  
監 事 留 卿 辰(新)  
監 事 留 在 光(新)  
理 事 留 在 光(新)

東會 泰倫·履範·會福  
在錫·元鏞·在學·正教  
景會·在殷·圭恒·詰會  
在福·在承·弘默·載默  
元榮·會秀·鳳會·成默  
敦會·相沃·相詰·南應  
得榮·澄植·南應·在錫  
在鎬·在晚·潤會·道演  
鎮國·在福·昌會·在一  
斗會·學永·寬浩·松默  
順宇

(翼元公派一〇名未定)  
(執行部는 二面에)

族譜란 祖上의 血統을 体系化하고 子孫의 昭穆을 밝힘으로서 宗親 間에 親睦을 敦篤히 함에 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趣旨에 立脚해서, 우리 大宗會에서는 지난, 一九七九년에 大同譜를 發刊하였으나, 이미 十年의 歲月이 흐르는 동안에 出生, 結 婚, 死亡, 移葬, 官職의 陞進, 學位取得 等등의 變動事項이 發生하였을 뿐 아니라, 大同譜에 漏落된 派中宗親도 許多하여 『派譜刊行』의 宗 議가 大作되고 이에 따라 全体理事會에서 爛熟熟議, 다음 事項이 決 議되었음으로 이를 公告하오니 按廉使公派 宗親은 無漏呈單 하시기 仰望하나이다.





/특/별/기/고/

대중회는 친목이 목적이다.

인간문화 연구원 원장 金道振 (按廉使公派)

1987년 우리 안동김씨 대중회가 지난 오월 삼일 개최되어 본인이 참석하...

효부의 표창이라든지 향학력을 격려하는 시상등은 참으로 뜻이 있고, 같은 핏줄을 받은 한할아버지의 후손다운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10여년전 대중회일을 돕기 위하여 당시 회장님과 같이 인천, 서울 등지에 종친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한 적도 있고 또한 안동에 총렬공할아버지의 신도비를 세우기 위하여 수차례 현장답사도 한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후로는 종친회일에 직접 참여하지도 못했고 간접적으로도 협조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대중회에 참석하여 경과보고를 듣고있는 나는 대중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지를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회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의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헤쳐가며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

회의 중반에 이르러서는 회의분위기가 처음과는 달리 나의 귀에 거슬리는 발언도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이 무너진 예를 비유하는 발언등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여·야당간에 정치싸움이라도 하는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분위기는 악화되었고 국회에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야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집권당이나 정부의 실수나 약점등을 파헤쳐 정치싸움을 벌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생각해 보았다. 이대회장안에 모이신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어 동양에 그 명성을 떨치신 대전략가시며 영웅이신 우리 총렬공할아버지의 혈통을 받은 후손이 아닌분은 한분도 안계시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수백명의 한할아버지의 후손이 모인 자리는 분명히 우리할아버지의 위대한 업적과 국가에 대한 공헌을 찬양, 고무할뿐더러 일가친척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거리의 원근을 무릎쓰고, 공사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이신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회의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나는 얼얼이 화끈 달아가며 총렬공할아버지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 단계이건간에 또 어느 사람이건간에 잘하는 일과 공적도 있겠지만 반면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그마한 실수나 착오 혹은 미비한 점등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를 끄집어 내거나 조그마한 미비점을 탓하거나 하여 집행부의 업적이나 공로를 무시한채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트집잡는 일은 한할아버지의 자손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일에 무엇이 도움이되며 도리어 집행부를 공격이나 하는 듯한 곤란한 입장을 느끼게 하는 등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럴수 밖에 없다면 차라리 대회라는 모임이 없는 것이 한할아버지의 자손끼리니깐 불복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라고까지 생각해 보았다.

이 글을 읽으시는 종친여러분! 진솔한바가 나의 편견이라고 꾸중을 하실분도 계시겠지만, 혹은 공감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것으로 믿읍니다.

그러나 당시의 모인 수백명의 한할아버지의 자손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요, 대중회가 결성된 목적이 일가끼리의 친목을 도모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현실행부가 10년간 쌓아놓은 업적을 여러종친들께서 더잘아시는 바일것이니, 좀더 좋은일과 좀더 건설적인 대화나 분위기는 얼마든지 시간을 끌어가면서라도 있을수 있는 일이나 사소한 일로 왈가왈부하여 지난날의 공적과 수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당초에 목표인 친목을 해치는 결과로 이끄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생각이됩니다.

앞으로 지난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닌 아주 따사롭고 정다운 분위기로 대화가 시종일관 되어 한할아버지의 핏줄을 받은 후손담기를 간절히 바라맞이 않습니다.

◆ 消 息 ◆

- ★지난 4월 13日(陰 3月 16日) 全南 康津郡 鶴川面 土馬里 南山의 典法判書公(諱 瑄) 以下로, 忠肅公(諱 承用), 評理公(諱 厚), 郡事公(諱 七陽)의 四代位 春季時享을 60余 後孫이 參席하여 嚴肅히 奉行하였고 行事後에는 새로 買入에 對한 經過報告와 그 收支狀況의 報告도 있었다. 惜惜惜
★江華郡 宗親會에서는 지난 4月 23日 江華邑所在 「약수터」에서 87年度 定期總會를 開催하였다. 翼元公派宗會長 代理 吉成氏 等, 많은 來賓과 家族同伴한 會員 百餘名이 參席한 이날 會議에서는 特히 大宗會 獎學基金으로 10萬원을 寄託했으며, 이는 年次計劃으로 5年동안 繼續해서 寄託하기로 可決되었다.
★大邱市宗親會 本年度 定期總會는 지난 5月 24日, 150余名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開催되었다.
★世界日報社長에 就任한 恩雨(典書公派) 博士의 祝賀리셉션이 지난 5月 2日 롯데 호텔 2層에서 關係要路의 人士 多數가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되었다.
★清州市·忠北道宗親會 定期總會는 지난 5月 31日 來賓 및 會員 多數가 參席한 가운데, 盛況裡에 끝났다. 特히 이날 會議에서는 清州市·忠北道宗親會長과 提學公派宗會長을 兼任한 得榮 宗親께서 「過重한 負荷」를 理由로 「道會長」에 對하여 辭意를 表함에 따라 按廉使公派 在夏氏를 後任으로 選出하였다.
★釜山直轄市 및 慶南道宗親會 定期總會는 지난 5月 31日, 釜山市民會館 小講堂에서 會員 150余名이 參席, 盛況裡에 끝났다.
★大邱地方檢察廳 檢事長 東哲(副使公派)宗親은 지난 6月 3日附로 法務部 矯正局長에 榮轉되었다.
★仁川地方檢察廳 檢事長 慶會(提學公派)宗親은 지난 6月 3日附로 大檢 中央搜查部長에 榮轉되었다.
★大邱高檢 部長檢査 次會(翼元公派)宗親은 지난 6月 9日字로 大邱地檢 刑事第一部長으로 轉補되었다.
★天原郡 木川 獨立紀念館 境內에 建立된, 「忠武公 金時敏將軍 語錄碑」除幕式을 尹 潛善 前大統領을 비롯한 많은 來賓과 千餘名의 宗親이 參席하여 盛大히 奉行하였다.
★槐山郡 宗親會 本年度 定期總會는 지난 6月 14日 150余名의 宗親이 參席하여 盛況裡에 開催되었다.
★白凡(金九)先生 第38週忌 追慕祭는 지난 6月 26日 午前 10時에 孝昌園墓苑에서 많은 各界人士가 參席하여 嚴肅히 奉行하였다.
★서울大學校 名譽教授인 泰吉 博士는 「小說에 나타난 韓國人의 價値觀」이란 論題로 「學術院賞」 수상 대상으로 選定되었다.
★6·25때 男便과 아들 4兄弟等 모두 5名의 家族이 戰死한 遺家族 金恩年(77·本宗人)이 지난 7月 11日에 清州市 社稷洞 自宅에서 別世하였다. 이날 訃音을 接한 全斗煥 大統領은 盧健一 忠北道知事를 特使로 보내, 弔意를 表하고 遺家族에게 金一封을 傳達하였다.

◆ 訃 告 ◆
★前 忠北戰歿軍警遺族會會長을 歷任하고, 장한 어머니로 選定된바 있는 恩年(閔氏家에 出嫁하여 六二五에 남편 아들 四兄弟 戰死)께서 지난 七月 十一日 清洲 社稷洞 自宅에서 享年 七十七歲로 別世.

大宗會顧問 前按廉使公派會長 金鳳演 槐山郡曾坪邑洞 1056
按廉使公派 金榮昌 서울.. 麻浦區 龍江洞 一一二一一 대교 APT 다棟 三〇三
忠北投資金融 代表 金在鶴 (按廉使公派) 清州市文化洞 一〇九一二
會長 金喆源 서울.. 道峰區 上溪洞 山一五一一 電話.. 九〇三一一八七三四
郡事公派 金鍾鏞 서울.. 西大門區 大峴洞 三三一一二 電話.. 三六二一一七〇二七
院長 金相卿 서울.. 江南區 新沙洞 五一二一三 電話.. 五四四一一六五三
翼元公派 金容文 榮豐郡伊山面雲文里





# 碩士學位論文

## 金方慶研究

清州大學校大學院 史學科 李相哲

### ● 略 歷 ●

- 1953年生
- 1981年 清州大學 역사교육과 졸
- 1986. 8 清州대학교 대학원 史學科 졸
- 현 清州신흥고등학교 교사.

### ○ 序 言

그러나 本國과 오랜 감정이 있던 洪茶丘가 이 사건을 듣고 元의 中書省에 청원하여 高麗에 오니 이듬해 忠烈王 4년에 다시 王이 忻都 洪茶丘 등과 함께 金方慶과 아들 忻을 다시 鞫問하는데, 洪茶丘는 金方慶에게 죄를 自服하게 해서 高麗에 화가 미치게 하려고 金方慶의 머리에 쇠줄을 두르고, 못을 치려는 것처럼하고 종일 金方慶을 발가벗겨 세워두니 날씨가 추워 살이 얼어 시꺼멓게 멍이 들었다.<sup>61)</sup> 그후 2월에 다시 鞫問하는데 洪茶丘는 기어이 自服시키려고 참혹한 방법을 가하니 온 몸에 온전한 곳이 없었으며, 숨이 잦다 깨어나기를 여러번 하였다 王이 보다 못해 自服을 해도 元帝가 사실을 옳게 밝힐 것이라며 金方慶을 달래자 金方慶은

臣은 군인 출신으로 직위가 宰相에 이르렀고 몸이 죽어 없어질지라도 나라에 다 보답할 수 없사옵네, 어찌 한 몸을 아껴 없는 죄를 自服해서 社稷을 저버리겠음니까?<sup>62)</sup>

라 하고 또 洪茶丘에게는 “欲殺便殺 我不以不屈”이라 하며 끝까지 不服하므로 마침내 兵器 감춘 것을 죄명으로 金方慶은 大靑島에 忻을 白翎島에 귀양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였다.<sup>63)</sup> 金方慶은 이렇게 마음이 곧고 意志가 굳어 不義에는 屈하지 않은 인격자였다.

印侯가 金方慶 귀양보낸 일을 알리기 위해 元에 가니, 洪茶丘가 사람을 보내 金方慶 사건을 미리 알고 있던 元帝가 印侯에게서 金方慶이 감추어 둔 兵器는 갑옷 46벌 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金方慶의 謀叛은 誣告라는 것을 알고, 洪茶丘를 소환하는 한편 王이 入朝하여 그 내용을 직접 告하도록 하였다.<sup>64)</sup> 忠烈王 4년 4월에 王이 먼저 元나라로 떠났는데 金方慶 父子와 韋得儒, 盧進儀도 함께 들어와 對辨하도록 하라는 元帝의 命에 따라 元에 가는도중 盧進儀는 죽고, 6월에 韋得儒도 죽었다.<sup>65)</sup> 忠烈王이 元帝를 만나 金方慶의 일을 변호하자 元帝는 金方慶의 원통함을 알고 그를 용서하였다.<sup>66)</sup>

이렇게 하여 忠烈王의 적극적인 변호와 元帝의 개입으로 誣告사건은 끝을 맺고 귀국 후에 金方慶은 僉議中贊 上將軍 判監察司事가 되어 복직하였다.<sup>67)</sup> 그뒤 忠烈王은 金方慶과 상의하여 洪茶丘와 밀착하였던<sup>68)</sup> 李汾禧 兄弟를 처단하였다.<sup>69)</sup> 이렇게 하여 本國 高麗에 대해 많은 반감을 가지고 高麗를 괴롭혀 오던 洪茶丘와 關聯된 일은 忠烈王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었다. 이것은 또한 지나친 洪茶丘의 간섭을 피하고자 하는 高麗 王室의 뜻이기도 하였다. 그 뒤 金方慶은 여러 차례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忠烈王은 오히려 元의 中書省에 上書하여 金方慶에게 虎頭金牌를 줄 것을 청하고 第2次 日本 遠征에 참여시킬 것을 건의하자,<sup>70)</sup> 元에서 金方慶을 中奉大夫 管領高麗軍都元帥로 삼고, 虎頭金牌와 印信을 줌으로<sup>71)</sup> 忻都和 다시 高麗에 부임한 洪茶丘의 專橫을 견제할 수 있었다.

金方慶이 70세에(忠烈王 7년 : 1281) 第2次 日本 遠征에 참여한 뒤 사직하기를 청하니 推忠靖難定遠功臣 上洛公을 더하고,<sup>72)</sup> 上洛郡 開國公의 爵號를 더하고,<sup>73)</sup> 食邑 一千戶와 食實封 三百戶를 封하였다.<sup>74)</sup>

金方慶은 元宗과 忠烈王代에 걸쳐 政治的, 軍事的으로 가장 크게 활약한 人物이었다. 새로운 麗元 관계가 성립되면서 三別抄의 저항, 제1차 및 제2차 日本 遠征으로 高麗가 크게 시련을 겪을 때 이 難局을 담당하고 出將入相하면서 누렸던 그의 지위는 獨步的인 것이었다. 또 金方慶은 元宗이나 忠烈王이 가장 크게 의지한 인물이었으며, 元으로 부터도 지극한 歡待를 받았다. 그는 元宗 14년 侍中이된 다음부터 忠烈王 9년에 致仕할 때까지 首相의 자리를 지켰고, 致仕한 뒤에도 거의 20년을 살면서 國家大事에 자문하였다. 이와 같은 金方慶의 활동으로 이 家門은 당시 가장 유력한 존재로 擡頭되었다.

### ○ 武人으로서의 金方慶

#### 1. 三別抄와 金方慶

元宗 11년(1270) 高麗 조정에서 出陸 還都를 결의하자 襄仲孫등은 6월에 承化侯 溫을 王으로 삼아 開京 정부와 다른 새로운 정부를 세워 三別抄를 거느리고 反政府, 反蒙古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봉기하였다.<sup>75)</sup> 그러나 江都는 육지와 指呼의 거리

에 있으므로(水戰에 능숙하지 못한 蒙古와는 40년 가까이 대항할 수 있었으나) 元宗이 蒙古와 결탁한 이상 다시 이곳을 근거로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三別抄는 江都를 버리고 南方 海上에 근거지를 구하기 위하여 남하하였다. 그러나 三別抄가 珍島로 들어간 것은 元宗 11년 8월 丙戌이었으니,<sup>76)</sup> 三別抄가 바로 珍島로 향한 것이 아니라 西海 일대의 島嶼를 거쳐 남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남하하는 三別抄를 토벌하기 위하여 金方慶을 逆賊追討使로 삼아<sup>77)</sup> 蒙古軍과 함께 해상으로 추격케 하였으니 金方慶傳에

……方慶에게 命하여 軍사 60餘人을 거느리고 蒙古 宋萬戶 등의 軍사 一千餘人和 追討하여 海中에 이르러 敵의 배가 靈興島에 碇泊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方慶이 치고자 하였으나 宋萬戶가 두려워하여 停止시키니……<sup>78)</sup> 라 한 것을 보면 큰 성과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珍島로 들어간 三別抄는 龍藏城을 쌓고 일대 海上 王國을 建設하였으며, 육지에서의 활동도 활발하여 長興을 비롯하여 合浦(馬山), 金州(金海), 東萊 등은 물론 羅州, 全州에까지 進攻하였다.<sup>80)</sup> 이렇게 三別抄가 珍島에 있으면서 육지의 州郡을 침략하자 全羅道討賊使, 申思佺, 全州副使 李彬이 도망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파면하고,<sup>81)</sup> 그 대신 金方慶을 全羅道 追討使로 삼아 蒙古 元帥阿海와 함께 珍島를 토벌하게 함으로써,<sup>82)</sup> 이때부터 金方慶이 統帥의 格으로 蒙古軍과 같이 珍島 토벌을 담당하게 되었다.

- 註 61) <高麗史節要> 卷20 忠烈王 4年 春正月條  
<高麗史> 列傳 卷17 金方慶傳
- 註 62) <高麗史節要> 卷20 忠烈王 4年 2月條  
「臣 起自行伍 致政宰相 肝腦塗地 不足以報國 豈愛身 誣服 以負社稷」
- 註 63) <上揭書> 同年 同月條
- 註 64) <上揭書> 同年 3月條
- 註 65) <上揭書> 同年 4月, 6月條에 盧進儀는 불안에 떨다 혀가 타서 죽었으며, 韋得儒 또한 寢食을 잃고 늘 하늘을 우러러 보며 탄식하다 얼마후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그가 천벌을 받았다고 하였다.
- 註 66) <上揭書> 同年 秋 7月條
- 註 67) <高麗史> 世家 卷28 忠烈王 4年 10月 癸丑條
- 註 68) <高麗史節要> 卷20 忠烈王 4年 2月條에 「右司議大夫鄭興 辭職歸羅州 時李汾禧兄弟 附茶丘 醜釀金方慶之罪, 興恥與同朝, 乞歸養母…」 또 同年 10月條에 「…會韋得儒事起 舉國洶洶 汾禧野潛詣茶丘計事 檮亦勸王曰 此自金方慶事 宜勿預知 國人謂汾禧兄弟 有二心……」
- 註 69) <上揭書> 同年 10月條
- 註 70) <高麗史> 世家 卷29 忠烈王 6年 11月 己酉條
- 註 71) <上揭書> 同年 12月 辛卯條
- 註 72) <高麗史節要> 卷20 忠烈王 9年 12月條  
<高麗史> 列傳 卷17 金方慶에는 「推忠靖難定遠功臣 三重大匡僉議中贊 判典理司事 世子師」로 致仕
- 註 73) <高麗史> 世家 卷31 忠烈王 21年 春正月 甲寅條
- 註 74) <上揭書> 同年 8月 己巳條
- 註 75) <上揭書> 列傳 卷17 金方慶傳
- 註 76) ○<上揭書> 世家 卷26 元宗 11年 6月 己巳條  
○承化侯 溫의 記보는 金瑛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 (完)」 <震檀學報> 제13권, 1941년, P. 77 참조
- 註 77) <高麗史> 世家 卷26 元宗 11年 6月 辛未條에 「剽掠子女財貨乘舟南下」라 하였고 同年 8月 丙戌條에 「三別抄 入據 珍島 侵掠州郡」이라 하였음.
- 註 78) <上揭書> 世家 卷26 元宗 11年 6月 辛巳條
- 註 79) <上揭書> 列傳 卷17 金方慶傳  
「……又命方慶 領兵六十餘人 與蒙古 宋萬戶等兵 一千餘人 追討 至海中 望見賊船泊 靈興島 方慶欲擊之 宋萬戶懼之……」
- 註 80) 金瑛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 (完)」 <震檀學報> 제13권, 1941. PP. 44~45.

## 1988年度 카렌다 注文開市

東瑞에서 製作한 70余種의 多樣한 모델로 顧客 맞을 準備가 되어 있습니다.

(宗親을 위해서 特別奉仕)



代表: 金鳳會

(安東金氏大宗會理事(都評議公派))

서울·중구 을지로3가 296-2 TEL. 272-4873·265-5351

인천·북구 가좌동 469-11 TEL. 83-1543·862-9461

安東金氏大宗會理事  
安東金氏提學公派會長  
清州市宗親會會長  
金得榮  
清州市壽洞二五二상당APT 一〇三  
電話·〇四三一—二一七八九六

前大宗會副會長  
大宗會顧問  
工學博士 金塔會  
(都評議公派)  
서울·江南區 驛三洞六八二—五  
電話·五六六一—〇三五二

提學公派 金奎泰  
서울·江西區 塩倉洞二六二—三  
대동주택 B棟 一〇五五  
電話·六〇四—八一一六三



# 宗門의 現場

## 全南·寶城郡 得糧面 三亭里 大護軍公派 深松門中編

寶城郡得糧面 三亭里 深松(或稱 金谷)마을은 安東金氏大護軍公派의 五百年 世居地다. 寶城은 韓半島의 最南端에 位置한 高興灣의 北方이라, 서울 驛을 出發한 湖南線 列車는 論山을 지나고 益山에서 부터는 廣瀾한 萬頃, 金堤平野가 눈이 모자라게 펼쳐져 視野를 흐리게 한다.

列車는 松亭里에서 木浦行本線을 벗어나, 麗水線으로 갈리고, 光州, 和順을 지나서, 綾州驛에 到着하니 地勢는 完全히 달라져서 東南方에 山들이 聳出해 天地間에 雄姿를 나타낸다. 列車는 鬱蒼한 森林의 사이를 헤치고 山間峽谷을 달리다가 어느덧 寶城郡界로 進入한다.

筆者가 寶城의 深松門中을 尋訪하기는 지난 四月 十三日(陰曆三月 十六日), 康津 土馬里 南山의 判書公(諱 愼 歲享次로, 八十七歲의 老齡에도 不拘하고 先祖의 享禮에 參席하신 在 變族叔을 따라, 간 것이 寶城 땅을 밝은 첫발이었다.

康津 市外에서 터미널을 出發한 直行巴士는 말끔히 整備된 鋪裝道路를 달리다가, 長興을 經由해서 寶城邑에 到着한 所要時間은 一時間에 不過하다. 四方이 높은 山에 둘러싸인 寶城邑은 山中담지 않게 小都市의 規模를 갖춘 아담하고 秀麗한 고장이다. 그리고, 바쁘게 往來하는 사람들의 休息에서 풍기는 親切感은 初行者의 印象을 포근하게 하면서 이 곳人心을 吟味케 한다.

碧玉壺中日閑 遊人到此不知還 客程斗折千峰外 寶館翠飛一水間 綠嫩柳堤風習習 紅驚花塢雨斑斑 興闌尚復貪佳致 吟詩朱樓更細看

이는 高麗 明宗 때 詩人, 老峰 金克己가, 寶城의 아름다운 風景와, 人心을 노래로 나타낸 名詩로서 『東國輿地勝覽』 寶城郡 編에 실려있어, 이로써도 寶城의 景致와 人心 風習을 헤아릴 수 있기에 이를 풀어 보기로 한다.

〔譯〕 碧玉壺 같은 속에 歲月이 한가로워 / 이곳에 노는 사람, 물아갈 줄 몰라라. / 나그네의 가든길 千峰 밖에 꺾여지고 / 날것 같은 客館은 一水間에 아름답구나 / 푸르고 부드러운 버드나무 언덕에 산들바람 불고 / 붉은 빛에 놀랜 꽃동산에 봄비 아롱지네 / 흥이 깊어지니 다시 금아름다운 景致 아취워 / 朱樓에서 글 읊으며 또 한 번 더 삶이네.

老峰先生은 이 한首의 詩로 寶城 땅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心情을 남겼으나, 八百年의 歲月은 흘러가도 아름다운 寶城의 人心과 風物은 오늘날까지 變함이 없어, 初尋者의 발길은 멈추게 되고, 떠나도 후회한 마음은 가지지 않는다.

深松里入口



寶城邑에서 市內버스(이곳에서는 郡內버스라 한다)를 타고 筏橋方面으로 달리니 不過 十餘分이면, 丘陵間은 綺麗해 鷹峙의 道路邊에서 下車하게 되고, 『심송리』라는 標石이 외로이 서서, 洞里有 石을 말없이 일러준다.

그러나, 마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새마을 사업으로 鋪裝된 좁은 進入路가 天然의 形態로 구비되면서 行先을 引導한다. 車道에서 約 二百M地點에 『安東金氏世居碑』가 언덕 위에

서 있어 발길은 다시 멈춰진다. 이 마을에 始居한 祖上님들의 來歷과 代代로 이어온, 宗門의 歷史가 簡略하게 記錄된 石碑가 말로 後孫된 精誠이며, 繼代로 이어진 敎訓의 表像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거룩한 事業에 머리가 숙여진다.

여기서 부터 좀더 詳述한 골짜기는 넓어져서, 마치 병목아지를 通過한 氣分이라, 老峰의 詩에 『碧玉壺中日閑』은 이를 두고 말함이 아닌가 싶다. 이제 길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왼쪽으로 아늑한 村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접어드는 길은 오솔길이다. 兩便에는 竹林이 옥여지고, 그 앞은 細風에 흔들리니 精神은 輕快한 音樂속에 잠겨 마치 仙境을 찾아가는 느낌이 든다.

마을은 온통 木발에 둘러싸여 있어, 山莊같은 景緻가 여겨지기 보이나, 이웃집과는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鬱蒼한 대숲은 하늘을 찌를 듯 하여, 防風林도 되고 住家의 울타리 구실까지 특출하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垣牆이라고는 없다. 그러나, 住宅는 모두가 農村답지 않게 裝飾되어 있다.

國土의 脊樑으로 내려뻗은 太白山脈이 秋風嶺에서 西南으로 갈리면서, 蘆嶺山脈이 되어, 內藏山의 絶景과 無等山의 雄姿를 남기고, 다시 南海로 뻗어 내리니, 德山이 솟아나, 寶城의 鎮山이 되고, 諸龍山이 南으로 打開해 圓形의 溪谷을 만들고, 尖端이 맞닿아서 水口만을 남겼으니, 이렇게 深松里를 造成한 造化翁의 기막힌 作品은 天下의 逸品이며, 伯夷峙의 聳峰이 案對해서, 文人達가 輩出됨에 疑心할 바 없다.

이 마을에 安東金氏가 定着하기는 約 五百年이나 된다. 高麗末에 武科로 司巡衛 精勇將軍 大護軍을 지낸, 諱 儒公은 李朝가 創業後, 羅州에서 살았고, 三代位의 墓所는 羅州에 계신다. 그러나, 大護軍公의 曾孫인 通贊公(諱 世重)의 後孫은 咸

平을 中心으로 해서 世居하고, 深松里에는 縣監公(諱 自重)의 後孫이 살고 있어, 縣監公의 墓所는 寶城에 계시니, 이때부터 이곳에 定着, 世居한 듯 하나, 『世廟(魏大煥撰)의 記錄에는 『世廟 原從功臣 諱 球의 子 舜壽公이 始入했다』고 되어 있고 또 一說에는 羅州에서 『避禍隱居』했다고도 한다.

寶城은 서울에서 八百五十里의 遠距離라 王化가 不及해서 高官大爵은 輩出되지 못했으나, 오직 文學과 詩章으로 名門의 系統을 綿綿히 이어왔고 다만 任實縣監公(諱 自重)을 爲始해서 原從功臣인 禦侮將軍公(諱 球·平市署 奉事公(諱 舜壽·參奉公(諱 舜起)·部將公(諱 明)·所江使公(諱 朋參奉公(諱 光澤)·王辰辰亂 때, 平壤城을 先登奪還한 部將公(諱 欣)·軍實監正公(諱 寄男)·奉事公(諱 良佐)·高宗朝에 別試登科하여 鎮川縣監을 지내고, 嘉善大夫 戶曹參判에 追贈된 諱 泰默公·敦寧府 都正公(諱 奎默) 등이 深松門中에서 官脈을 이어온 분들이다.

그러나 深松門中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로 世傳되어 갈일이, 있으니 이는 白凡(諱 九)先生이 八十餘日이나 이 마을에서 隱遁避身한 事實이다. 一八九六年에 白凡께서는 黃海道 安岳에서, 日本軍 中尉를 擊殺하고, 避身의 行脚을 떠나, 全羅道로 접어들어 康津의 郡事公派 門中을 찾았으나 워낙 地勢가 平廣하고, 四方으로 連絡網이 펼쳐져 있어, 懷疑의 情을 품고, 다시 떠나 一家 마을을 찾은 곳이 바로 이곳(深松)이었다.

朝廷에는 倭賊이 亂舞하고, 심지어는 國母(明成皇后)를 殺害한 雪辱을 唯一하게 敢行한 萬古忠節의 憂國青年宗人을 마지한 全門의 老少들은 그 날로 當直順番을 定해서 每日같이 洞口中에서 농사일을 하고, 혹은 맨 나무를 採集하면서 『수상한者』의 出入을 偵察하고, 迅速한 暗號傳達을 徹底히 함으로써, 白凡先生은 八十餘日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었고, 다음의 行動을 構想할 수 있는 餘裕를 주었으며, 마침내 祖國光復의 巨星으로 靑史에 기리 빛날, 宗門의 榮光을 누리는 데 充分한 一翼이 되었다. 深松의 宗中도 어느 農村과 마찬가지로 靑壯年은 大多數가 都市로 進出하고 上下 마을에 不過 二十餘戶만이 農耕으로 業을 삼고, 先聲의 守護와 門事에 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을의 門老들은 老益壯을 誇示할 마치 모두가 健康하며, 이 마을에서 出生한 學生들은 舉皆가 優等生으로 獎學金으로 工夫하고 있으니 이 모두가 祖上님들의 積德하신 餘蔭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大宗會 初創期에 物心兩面으로 賢勞한 洋會氏와, 大宗會理事로 多年間 活躍한 在均氏도 이 마을 出身이며, 全南大學校 物理科大學 教授 汝根·同大學校 商科大學 教授 泰基·農協中央會 外國部代理 進會·全南高等學校 教師 泰鍾·光州商業高等學校 教師 昌日·羅州中·高等學校 教師 泰權 등은 모두 을 바른 師道의 길을 걷고 있으며, 鐵道廳 客貨車課 主任 泰日氏와 美國에서 數學博士學位를 取得하고 歸國해서 裡里의 圓光大學 教授로 있는 泰星氏의 兄弟도 이 門中 出身이다.

寶城은 옛부터 『모시』길삼의 고장으로有名했으니, 鄭坤은 『四野農桑富』라 하였고, 文康公 李石亨은 『桑麻十里雲烟暗』桃李千村雨露濃』이라 할 마치, 養蠶과 蠶絲가 土着되었고, 아직 그 傳承은 사라지지 않아서 대나무 숲을 스쳐가는 바람을 쓰이면서 婦女들이 둘러앉아 삼(麻)을 삼는 모습은 새삼스럽게 어딘 時節을 回想케 한다. 지금이 深松門中에서는 前大護軍公派 會長이며, 現 大宗會理事인 敎會氏를 비롯해서 門中의 諮問格인 在奉氏와 泰默·升默·炳會·相會等 諸氏가 門中의 大小事를 踈陟없이 해 나가고 있다. (끝)

(元榮記)

<h3>金本伊勢田診療所</h3> <p>所長 金泰恒 (都評議公派)</p> <p>京都市 宇治市伊勢田町砂田 144-2 電話: (0744) - 20 - 3653</p>	<h3>月刊 韓國文學</h3> <p>代表 金奎一 (提學公派)</p> <p>서울: 鍾路區 仁寺洞 1-1 (藝林빌딩 501號) 電話 (事) 732-5261·733-7328 (自) 782-4106</p>
---	--



